

‘하나되는 음악, 소상공인에 희망을’

이음음악협회 ‘다시, 전주’
내달 14일 문화공간 이로서
‘트리오 아미티에’ 특별 초청



‘다시, 전주’ 포스터.
(사진=이음음악협회 제공)

트리오 아미티에(Trio Amitié)는 오직 음악을 통해서만 가능한 감동과 공감을 전달하고자 한다. 아미티에(Amitié)는 프랑스어로 ‘우

정’이라는 의미이며, 이 팀은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박상욱이 모여 음악적 우정과 열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트리오 아미티에의 리더인 피아니스트 박상욱은 신박류으로 이미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로 전주에서도 여러번 초청돼 전주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의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국제 콩쿠르에서의 입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대에서의 박사 과정 졸업 및 최고연주자 과정 수료, 그리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의 공부를 통해 그의 피아노 연주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은 취리히 국립음악원 대학원을 거쳐 바이올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경력과 함께, 삼성라이징 스타 시리즈 아티스트로서도 주목받았으며, 그의 연주는 예술의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소중한 음악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첼리스트 이호찬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았

고 그의 연주로 인천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뛰어난 연주 경력을 자랑하며 국내외에서 그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음음악협회 대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희망 나눔 콘서트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하는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희망은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주사람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생과 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발전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매를 통해서 가능하고 현장구매도 가능하다. 티켓은 전석 3만원이며 9월 7까지 조기예매할인(2만원)을 진행한다고 한다. 자세한 예매 안내와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94668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063-223-53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다음달 14일 저녁 7시 30분, 전주 문화공간 이로서 이음음악협회의 주최로 열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나눔 콘서트 ‘다시, 전주’는 그간의 일상의 피로와 더위로 지쳐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 특별초청된 트리오 아미티에(Trio Amitié)는 ‘다시, 전주’ 콘서트를 통해 전주지역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시민들의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마음 치유의 힘을 보태고자 남녀노소 모두가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무대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날 공연에서 선보일 곡들은 R. Schumann의 Widmung과 E. Elgar의 Salut d'amour Op.12, R. Schumann의 3 Romances for Cello and Piano, Op.22 (Andante molto, Allegretto, Leidenschaftlich schnell), E. Satie의 Je Te veux 등 다양한 곡들로 준비가 되어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호패 만들기 체험

전주공예품전시관은 누리관에서 9월 2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호패 만들기 체험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선시대 성인 남성이 차고 다니며 착용자의 신분이나 지위, 거주지 등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담았던 호패를 제작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에 따르면 체험은 호패의 유물에서 모티브를 딴 매듭 노리개와 나무패로 구성됐다. 특히 체험객이 호패에 생년월일이나 성명, 거주지 등을 직접 쓰고 꾸밀 수 있도록 추가 재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jonjucraft.or.kr)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국전통문화재단 김도영 원장은 “과거 신분증 역할을 하던 호패가 현대인의 감성을 나타내는 소품으로 그 역할과 쓰임을 새롭게 얻었다”면서 “호패에 감성을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아이템으로 재탄생 시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현곡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다. 문의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063-281-1610)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승·창조... 내달 1일 ‘2023 무형유산축전’ 개막

국립무형유산원 기념 · 축하 영상 상영
방짜 유기 타종 개막 기념 퍼포먼스



증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증서는 240여

(두드려 만든 낱씨 시물) 타종 개막 기념 퍼포먼스가 준비됐다. 또한 최은진 문화재단장이 무형유산 전승에 공헌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240여 명에게 대통령 명의의

문화재단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9월 1일 오후 4시 중정에서 2023 무형유산축전의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승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기 위해 마련되는 무형유산 종합축전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기념·축하 영상 상영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김영자 등의 축하공연과, 방짜 유기

명의 보유자(단체)를 대표해 이영희(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정춘모(갯길 보유자), 민순애(강릉단오제 보존회장/보유자)씨가 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연계 행사로 국가무형유산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작품전, 미디어 아트(기록의 정원), 전통놀이 판놀이(개막공연) 등이 마련돼 있다. 문화재단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 특강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29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9일 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020년 기준 총 282만 명으로 전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장애 원인으로는 88%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복지문화를 조성하고자 △성차별·성희롱·성폭력과 성인지 감수성과의 연관성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성원의 책무 등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사전처리 절차와 피해자 권리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전정희 원장은 “기관의 임원 및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조직의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전북여성가족재단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복식에 필요한 패턴 디테일
섬세하게 적용... 작품에 표현



전북예술회관 3층 신마루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황의자 작가의 작품들.

전북예술회관서 황의자 첫 개인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신마루 전시실에서 황의자 작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이력이 없는 도내 경력 단절 시각 분야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 시각 분야 전문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동기 부여 및 예술활동증명 등록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작가에 따르면 남들과 다른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옷이나 흔하지 않은 옷들을 찾으려 자신의 취향을 만들어 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본인만의 가치와 취향을 찾으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복식에서 필요한 패턴 디테일을 섬세하게 적용해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다. /정은성 기자

‘매일 1캐럿 씩 쏟아지는 진짜 보물 찾으러

익산 귀금속보석산업단지 등서 내달 1~3일 ‘익산보물찾기 축제’

매일 1캐럿씩 3일간 진짜 보석이 쏟아지는 보물찾기 게임이 내달 익산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산업의 뿌리이자 반세기 역사를 간직한 익산귀금속공업단지 현장에서 숨겨진 진짜 보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29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영동동 귀금속 보석산업단지과 보석박물관 광장일원에서 제2회 익산보물찾기 축제가 펼쳐진다. 보석문화도시 익산 익산은 보석이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메인 프로그램인 보물찾기 방식을 AR(증강현실)을 결합해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보석공예체험의 대폭적인 확대, 익산의 대표 주얼리 브랜드인 테니스 팔찌 특별전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및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매일 다이어트 1캐럿이 걸린 ‘AR보물찾기’는 이번 축제의 백미다. 포켓몬고와 같은 디지털 기술로 핸드폰을 통해 행사장 내 보석을 찾으면 실물 코인을 받는다. 또한 실물코인은 오프라인 게임까지 확대해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사전접수는 조기 마감되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안전한 게임 진행을 위해 접수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며, 해당 참여인원을 축소 3일간 분산 운영해 인파몰림 현상을 방지한다. ‘보석RPG주머니게임’은 귀금속단지를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고 접수한 순위로 총 12등의 골드메카 상품으로 지급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전접수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마감됐다. 특히 ‘누구나 즐기고, 누리는 보석공예체험’은 지난해 큰 호응에 힘입어 체험부스를 대폭 총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무료체험 프로그램은 썬케어 오브제, 크리스탈 반지 진주목걸이 만들기 등이며, 유료체험은 반려견반려묘 인식표만들기, 미니셀 개인은반지 만들기, 미야방지 은팔찌 만들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익산 보석을 빛낸 명인과 명작들의 작품 전시와 아트페어, 익산 보석산업의 발전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48년사 기록전, 익산 보석산업에 종사하셨던 장인들의 기록이 담긴 보석과 사립전, 익산 새로운 대표 주얼리 브랜드 테니스팔찌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로 보석문화도시 익산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익산 귀금속업체 대표 27명으로 구성된 ‘보물찾기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수)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익산시 전역의 보석 명인과 업체 대표, 종사자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냈다. 또한 참가자 상품과 기념품을 위해 37개 업체에서 5,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2,217점을 모아 익산시에 기증했다. /익산=이재훈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농아인 전복협회와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제공 ‘맞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충현)은 지난 28일, 사)한국농어인협회전북도협회(협회장 이형노)와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발전과 청각·언어 장애인에 공정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양 기관은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의 내용 공유 및 상호 홍보, 지역사회 및 청각·언어 장애인에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협력사업, 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전통예술 공연관람 및 교육지원, 기타 두 기관의 교류 및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준비 중인 무장에 기획공연(Banier-fite)-강강술래에 참여한 달남(11월 3~4일,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의 성공적 개최와 남원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전통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로 더 스머플’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9월 15일까지 문화예술교육 분야 기획자 대상 ‘예술로 더 스머플’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 연구 프로그램 일환으로 ‘예술로 더 스머플’은 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기획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은 필봉문화촌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작년보다 운영된 이 사업은 지역 문화에 대한 체력과 기획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분야 기획자들의 소통의 창을 마련해 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마을 및 도시 문화예술사업 사례 소개 △문화예술의 현장 돌아보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비롯해 필봉문화촌의 마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예술적 사고 증진과 교육 기획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연수대상은 예비기획자를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25명이며, 숙박형 연수프로그램으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임실 필봉문화촌과 전주 서화예술마을 등에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